

# 고대 도서관 명칭의 기원과 변용

##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the Word 'Library' in the Ancient World

윤 희 윤 (Hee-Yoon Yo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서관 명칭 |
| II. 도서관·기록관의 기원과 쟁점    | V. 결론 및 제언            |
| III. 고대 근동의 기록관·도서관 명칭 |                       |

**요약:** 본 연구는 고대 근동 및 그리스·로마의 기록관과 연계한 도서관 명칭의 기원과 변용을 추적하였다. 첫째, 도서관이란 말의 기원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에서 라틴어 bibliothēke가 파생되었고 최초 흔적은 2세기 후반 폴룩스의 『Onomasticon』이고, 문헌 텍스트 집합으로 간주하면 1602년 립시우스의 『De Bibliothecis Syntagma』다. 다른 하나는 라틴어 libraria가 고대 프랑스어 librairie로 변용된 후 14세기 초 library로 정착되었다. 영어 library는 1374년 초서가 조어하였다. 둘째, 고대 근동의 점토판 보존소는 기록관에 가깝지만 공식 명칭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슈르바니팔 점토판 보존소는 기록학계의 원질서 존중 및 출처주의 원칙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왕실기록관이 아닌 왕립도서관의 원형이다.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공식 명칭은 βιβλιοθήκη της Αλεξάνδρειας'이었고 'ALEXANDRINA BYBLIOTHECE'로 변용되었다. 셋째,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기록관과 도서관이 분리되었다. 그리스 도서관은 체육관 부설 도서실 수준이었고, 독립된 명칭은 거의 없었다. 목욕탕에 많이 부설된 로마 도서관의 명칭은 βιβλιοθήκη와 Bibliotheca이 혼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대 도서관은 중세 수도원 도서관으로 계승되었고, 이슬람제국에서는 '바이트 알-히크마'로 변용되었다. 한중일에서는 19세기말 화제한어 도서관이 수용되었으나 쟁점이 많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도서관 명칭, 도서관 변용, 고대 근동 도서관, 고대 그리스·로마 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traced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word library linked with archives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Greece and Rome. First, the word library has two origins. One is derived from the Latin bibliothēke from the ancient Greek βιβλιοθήκη. The first trace is Pollux's Onomasticon in the second half of the 2nd century, and if considered as a set of literature texts, it is Lipsius's De Bibliothecis Syntagma in 1602. The other was established as an library in the early 14th century after Latin libraria (or librarium) was translated into Old French librairie (or librairie). The word library was coined by Chaucer in 1374. Second, the clay tablet repository that existed in the ancient Near East is close to an archive, but the official name is unknown. However, the Ashurbanipal clay tablet archive is far from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original order and origins emphasized by the archivists, so it is not a royal archive, but a prototype of the royal library. And the official name of the Library of Alexandria was βιβλιοθήκη της Αλεξάνδρειας', and then it was changed to 'ALEXANDRINA BYBLIOTHECE'. Third, In ancient Greece and Rome, archives and libraries were separated. Greece libraries were at the level of a small libraries attached to gymnasiums, and had few independent titles. The names of the Roman libraries often attached to the public baths were mixed with βιβλιοθήκη and Bibliotheca. Finally, the ancient library was succeeded to the cathedral bibliothek, and was transformed into 'bayt al-hikmah' in the Islamic Empire. In Japan, China, and Korea, Japanese-Chinese word library was accept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but there are many issues that require follow-up research.

**KEYWORDS:** Word Library, Library Transformation, Library in ANCIENT Near East, Library in Ancient Greece and Rome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 논문접수: 2021년 11월 28일
- 최초심사: 2021년 11월 29일
- 게재확정: 2021년 12월 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1-21,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4.202112.1>

## I. 서론

### 1. 연구목적

그리스 신화에서 티탄족 므네모시네(Mnemosyne)는 명계에서 기억의 연못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기억을 의인화한 여신이 인간에게 전수한 기관이 두뇌의 해마(hippocampus)다. 불가에서 기억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인식적 작용이 해마에 저장된 상(相)이다. 그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망각이 해마의 정상적인 기억과정의 일부라면, 므네모시네에서 유래한 기억상실증은 단기적 오작동이고 치매는 장기적 기억장애다. 따라서 기억은 므네모시네의 선물이고, 망각은 레테(Lethe)의 축복이다.

시칫말 중에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남는다’는 경구가 있다. 기억은 세월과 함께 왜곡되거나 망각된다는 점에서 논리적 비약이다. 이러한 유한성을 극복하는 장치가 기록이다. 인류가 삶의 흔적을 기록한 암벽과 비문, 필사본과 인쇄물, 사진과 증언, 시청각 자료, 인터넷 파일 등이 방증한다. 신화가 집적된 무세이온, 지적 편린이 누적된 기록관과 도서관이 대변한다. 해서 기억을 박제화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Plutarchus, 46-119)는 『영웅전』(Parallel Lives)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테세우스의 배’(Ship of Theseus)에 주목하여 “부품을 계속 교체하여 원형이 사라졌다면, 그 배는 원래의 배인가, 다른 배인가?” 라는 질문으로 철학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기록에 함축된 역설은 고대 점토판(clay tablet), 파피루스(papyrus), 양피지(parchment) 보존소를 두고 재현되어 왔다. 기억을 문자화한 것이 기록물이고 그 대명사는 문서와 책이다. 그들은 지적 통찰과 조합이자 집단적 지성이다. 문서와 책이 기억과 사고의 기록이라면 기록관과 도서관은 집합적 기록물의 집이다. 거기에는 지적 논리, 역사적 추적, 각사와 필사, 집요한 수집·보존의 열정이 응축되어 있다. 세월을 두고 숙성되면 역사적 사료 및 지식유산으로 격상되고 사상반추, 지식창조, 사회변혁을 견인한다. 그럼에도 기원전 기록물 보존소의 성격과 명칭, 기원과 변용에 대한 추적은 여전히 부족하여 판도라 상자 속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관과 연계하여 고대 도서관 명칭의 기원과 변용을 추적하고자 한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문명의 십자로 내지 모자이크로 회자된 시리아의 예블라와 마리, 수메르 문명의 산실인 도시국가, 나일강 선물인 이집트,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신화와 역사를 기록한 점토판 등을 집적한 시설은 기록관인가, 도서관인가. 당시 명칭은 무엇이고 어떻게 표기하였는가. 도서관을 지칭하는 라틴어 bibliothēkē와 영어 library의 어원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변용되어 왔는가를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속연구에서 사료 발굴 및 고증이 계속되어 역사적 사실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첫째, 시대적 범위는 BC 4000년 전후에서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AD 5세기까지로 한정한다.

둘째, 지리공간적 범위는 고대 문명 발생지인 비옥한 초승달 지대(레반트와 근동,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로마제국까지다.

셋째, 연구방법은 사료 및 문헌조사를 전제로 시대적 선후 내지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고대 사료, 학술논저, 디지털 파일, 인터넷 자료, 홈페이지와 사이트까지 최대한 추적하고 원전 인용의 전거 및 연계를 밝힌다.

그럼에도 입수 가능한 원전 및 사료가 부족하여 대다수 문헌연구에서 제기되는 한계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한 추적과 논증이 계속되어야 한다.

## 3. 선행연구 개관

인류의 기억과 기록을 집적한 기록문화사는 6천년을 상회한다. 그 요체가 기록관과 도서관임에도 어떤 명칭이 사용되었고 어떻게 변용되었는지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마저 고대 근동 및 서양에서 연구되었을 뿐, 국내에는 전혀 없다.

먼저 Hendrickson(2013)은 철학적 관점에서 도서관의 기원, 그리스 도서관 발견, 로마 도서관의 공간적 및 사회적 역동성, 이념과 물질성, 권력과 이데올로기, 인문학 원류인 교육(Paideia)과의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여러 기관에서 해독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주로 책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도서관이 등장하였고, 체육관과 왕실도서관 등은 로마인의 도서관 이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왕이나 군주가 정치권력과 불가분한 문화적 권위를 행사하고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서관과 장서를 통제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음으로 Mamoli(2014)는 건축학적 측면에서 고대 도서관의 기원, 디자인과 건축양식, 이용을 개관하고, 3개 범주(고대 증언과 건물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고대 증언은 없으나 건물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와 추론, 도서관 구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제시된 잔해가 남아 있는 경우, 증언을 통해 알려졌으나 건물 잔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위치와 방향, 건립 시기와 건립자, 규모 등을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Delhey(2015) 등은 필사문화사 입장에서 도서관이 사본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 명칭과 의미가 다양함에 주목하여 각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수집·제시하였다. 그 대상은 터키 이슬람교 분과인 알레비(Alevi), 인도 산스크리트(Sanskrit), 인도 드라비디어족의 타밀(Tamil), 티베트, 베트남, 태국, 중국, 일본, 아프리카 스와힐리(Swahili)와 에티오피아, 그리스와 비잔틴 서유럽 중세의 라틴 등이다. 그러나 고대 한국의 필사문화 및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 II. 도서관·기록관의 기원과 쟁점

### 1. 도서관의 기원과 출현

모든 도서관은 3가지 키워드를 함축한다. 그 요체는 장서를 비롯하여 보존·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 제3의 사회적 장소를 포괄한다. 이러한 함의와 잠재력은 지식문화 및 지역발전과 유의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가 설립·운영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지구촌 도서관은 260만개(국가 351개, 학술 95,208개, 공공 406,915개, 커뮤니티 25,642개, 학교 210만개, 기타 39,899개), 정규 직원은 1.6백만 명, 등록자는 1,109.3백만 명, 방문자는 6,189.1백만 명, 도서 대출은 9,173.6백만 건(전자 자료 13,141.3백만 건)에 달한다(IFL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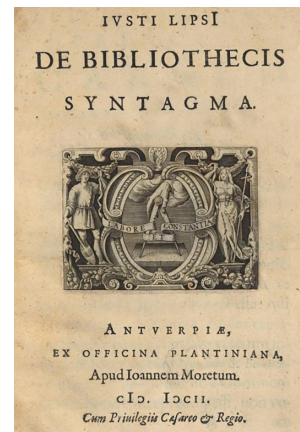
그렇다면 도서관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하였는가. 한 갈래는 '책 상자'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βιβλίον 책·수피+θήκη 상자·용기) 또는 βιβλιοθήκη에서 파생된 라틴어 bibliothēkē 또는 bybliotheca(biblio 책·수피+thēkē 상자·용기·컨테이너)다(Pfeifer, 1989, 166; Hendrickson, 2014, 4; Rajesh, 2020, 5681). 프랑스어 bibliothèque, 독일어 bibliothek, 이탈리아·스페인어 biblioteca, 네덜란드어 bibliotek가 대표적이다. 다른 갈래는 라틴어 liber(속격 libri, 책·종이·양피지)를 함축하는 libraria(책의 집합 내지 장소)와 librarium(책장, 책 컨테이너)에서 유래한 고대 프랑스어 librairie(또는 librairie, 책의 집합)에서 변용되어 14세기부터 영미권에서 사용된 library이며(OED), 국가별로는 <표 1>과 같이 변용되었다(Language Drops: In Different Languages).

<표 1> 주요 국가에서 도서관을 지칭하는 단어

국가	단어	국가	단어	국가	단어
미국, 영국	library	터키	kütüphane	한국	도서관(圖書館)
독일	bibliothek	폴란드	biblioteka	일본	図書館 (としょかん)
프랑스	bibliothèque	헝가리	könyvtár	중국	图书馆 ([tushūguǎn])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멕시코	biblioteca	러시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библиотека	대만	圖書館 ([tushūuǎn])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bibliotek	핀란드	kirjasto	베트남	thư viện (图书馆)
네덜란드	biblioteek	에스토니아	raamatukogu	태국	ห้องสมุด
그리스	βιβλιοθήκη	크로아티아	knjižnica	인도	पुस्तकालय
아이슬란드	bokasafn	체코	knihovna	인도네시아	perpustakaan
알바니아	librari	스왈리	maktaba	아랍	مكتبة

고대 그리스(BC 800-323년) 문헌에 βιβλιοθήκη가 최초로 등장한 사례는 BC 36-30년 시칠리아계 그리스인 시쿨루스(Siculus)가 포에니 전쟁(Punic Wars)<sup>1)</sup>을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 『βιβλιοθήκη Ἱστορικὴ』(Bibliotheca historica, 전 3장 40권)이다. 9세기 중후반 콘스탄티노플 주교 포토우스(Photius)가 독서한 280권에 대한 감상문이자 비잔틴 최초 백과전서로 간주되는 서명도 『βιβλιοθήκη』 또는 『Μυριόβιβλος』이다. 모두 그리스 신화와 전설의 요약, 사고(史庫), 책의 집성 등을 의미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βιβλιοθήκη가 도서관을 지칭한 문헌의 최초 흔적은 2세기 후반 문법학자 폴룩스(Pollux)가 저술한 그리스 방언사전 『오노마스티콘』(Onomasticon, 그리스어 νομαστικόν)이다. 그 내용 중 희곡시 ‘Hypobolimaesus’에서 BC 4세기 희극시인 ‘Cratinus the Younger’이 βιβλιοθήκη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Hendrickson, 2013, 9). 서가나 도서관, 또는 장서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을 ‘텍스트 집합’으로 간주할 경우, βιβλιοθήκη에서 파생된 라틴어 bibliothēkē가 최초로 등장한 문헌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학자 립시우스(Lipsius)가 1602년 출간한 근대 도서관사에 관한 최초 단행본인 <그림 1>의 『도서관사 개요』(De Bibliothecis Syntagma, 총 34페이지)다. 그는 “도서관은 고대의 기관이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도서관은 문학 자체와 함께 발명되었다”고 기술하였다(Walker, 1991, 49-65). 이 책은 이탈리아 추기경 보로메오(Borromeo)가 1609년 밀라노 궁전에 암브로시아나 도서관(Biblioteca Ambrosiana)을 설립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1627년 노데(Naudè)가 저술한 『도서관 설립에 관한 조언』(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éque)에도 영감을 주었다.



<그림 1> De Bibliothecis Syntagma(1602)

한편, 영어 library의 출현에 단초를 제공한 문헌은 로마제국의 정치인 및 최후 철학자 보이티우스(Boëthius)가 524년 옥중에서 산문체로 저술한 『철학의 위안』(De Consolatione Philosophiae, 전 5권)이다. 동고트 초대 국왕 테오도리쿠스(Theodoric the Great, 재위 488-526년) 통치 하에서 의원 및 집정관을 역임한 보이티우스가 반역죄로 사형을 언도받기 전에 카롤링거 왕조(Carolingian dynasty)에서 르네상스까지를 기술한 철학 입문서로 아름다운 시 39편도 포함되어 있다. 단테의 『신곡』에도 수차례 인용되었다. 1374년 영문학 아버지로 회자되는 영국 작가 초서(Chaucer)가 『철학의 위안』을 번역하면서 library란 단어를 조어하였다(Kupfer, 2010).

1) 로마 공화국과 튀니지 일대의 페니키아인 해운 강국 카르타고(Carthago)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120년간 벌인 3차례 전쟁(1차 BC 264-241년, 2차 BC 219-201년, 3차 BC 149-146년)을 말한다. 패전한 카르타고는 로마 속주로 전락하였다.

## 2. 도서관·기록관의 파생과 변용

원래 서가나 책장을 의미한 고대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는 책을 수장하는 장소로 변용되었다. 그럼에도 책을 보존하는 물리적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책의 집합을 상징하는 환유적 (metonymical) 용어다. 동일한 맥락에서 βιβλιοθήκη와 변용된 라틴어 bibliothēkē는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라 시공간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책을 넣는 캐비닛은 ‘κιβωτός’, 파피루스 롤은 ‘βιβλιό’로 지칭하였으나, 당시 도서관을 대변하는 용어는 βιβλιοθήκη이었다. 물론 보존용 서고였고, 책과 관련된 활동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BC 2세기 페르가몬 체육관 비문에 서가와 서고를 의미하는 βιβλιοθήκαι 이 기술되어 있고(Platthy, 1968, 138-139), 이집트에서는 βιβλιοθήκη이 문서 보존소를 의미하였다. 그 이후 그리스, 비잔틴, 중세 라틴어를 중심으로 βιβλιοθήκη의 언어별 파생 및 변용 사례를 간추리면 <표 2>와 같다(Delhey et al., 2015).

<표 2> 도서관·기록관(βιβλιοθήκη, bibliothēkē)이란 말의 파생 및 변용

구분	용어의 파생 및 변용
그리스 비잔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ἀποθήκη(apothékē): 물건, 잡지(책), 창고의 장소</li> <li>■ ἀρχεῖον(archeion): 시청, 집행관 사무실, 공공기록, 기록관</li> <li>■ βιβλιοθήκη(bibliothékē): 책장(bibliothékē/bybliothékē), 도서관</li> <li>■ βιβλιοκάπηλος(bibliokápēlos): 도서 취급자, 서적상</li> <li>■ βιβλιοφόριον(bibliophóron): 책장, 편지함(βιβλιαφόρος)</li> <li>■ βιβλιοφυλάκιον(bibliophylakion): 책 보관소, 기록관(βιβλιοφύλαξ)</li> <li>■ kitap(복수형 kitaplar, 터키어): book, print, manuscript</li> <li>■ kitaplık(터키어): 책이 보존된 장소, 서가, 저장, 도서관, 장서</li> <li>■ armarista, armarius: 기록물 관리자, 사서</li> <li>■ bibliothecarius, repositarius, repositor: 사서</li> <li>■ chartularius or tabularius: 기록물 관리자</li> </ul>
중세 라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chivum: 기록관(ἀρχεῖον)</li> <li>■ arca(or area) or armaria, armamentarium: 도서관, 기록관</li> <li>■ bibliotheca: 도서관, 파일 캐비닛, 성경</li> <li>■ chartophylacium: 기록관</li> <li>■ librarium, repositorium: 도서관</li> <li>■ armarista, armarius: 기록물 관리자(chartularius), 사서(bibliothecarius)</li> </ul>

그런가 하면 기록관(archive)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의 통치 또는 정부기록 유지의 중요성을 함축하는 ἀρχή(ärke, 사무실 또는 정부)에서 유래된 아케이온(ἀρχεῖον, arkheion)이다. 여기서 파생된 라틴어가 archium(또는 archivum)이고, 프랑스어 archif로 변용된 후 다시 1600년경 영어 archive가 출현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역사학이 시작된 이래로 ἀρχεῖον은 시청사, 거주지

또는 공무집행관 사무실, 공공기록, 기록물 보존소, 대학, 군대 본부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세 라틴어에서 기록관을 의미하는 용어는 archivum과 chartophylacium(χαρτοφυλακεῖον, 콘스탄티노플 그리스철학회 도서관 사본과 문서)이었고 후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도서관을 지칭하는 용어는 βιβλιοθήκη(bibliothékē)에서 파생된 bibliotheca와 librarium이었다. 그럼에도 책을 포함한 문서 집성체를 설명할 때 bibliotheke와 chartophylakeion이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도서관과 기록관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Liddell, 1996; Grünbart, 2017, 326).

### 3. 도서관·기록관 명칭의 쟁점

과거 기록물은 역사를 구성·방증하는 요체다. 거기에는 실증적 사료와 기록자 사관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적 역사학자로 베를린대 교수를 역임한 랑케(Ranke)는 『세계사』에서 ‘사료에 충실하고 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은 채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고 기록된 것’을 역사로 정의한 반면에 외교관 경력과 웨일스대 교수를 역임한 카(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없고 역사가가 기록·평가·비판하여 재구성한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였으며, 철학자 헤겔(Hegel)은 『역사철학강의』(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Weltgeschichte)에서 과거 사실을 객관적 역사로, 기록을 주관적 역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역사관 차이는 신화와 종교, 왕조와 통치, 법률과 행정, 상거래, 삶의 흔적 등을 기록·보존한 시설 또는 공간의 명칭에서도 재연되어 왔다. 고대 신전과 왕궁 등에서 발굴된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를 보존한 공간을 두고 고고학계는 기록관으로, 문헌정보학계는 도서관으로, 또 일부는 혼합 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현대적 기준에 입각한 자의적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는 기록물관리기관을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2호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도서관법』 제2조 제1호는 도서관을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제2호는 도서관자료를 “...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양대 정의에서 외형적 차이는 ‘도서관자료’와 ‘기록물’이고, 후자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로 한정되지만 실제 범주 및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다.

현재적 시각으로 보면 기록관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비출판물(원천자료)을 대상으로 출처 및

원질서를 존중하며 중장경용(重藏輕用)에 방점을 둔다. 도서관은 생산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출판된 자료(가공자료)를 수집하되 주제별 또는 저자순 체계화를 강조하며 중용경장(重用輕藏)에 더 주력한다. 기록관은 원본 중심 문서(documentary)의 집합이고 도서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복본을 허용하는 문헌(literary)의 집성체이며, 문서가 상당히 많으면 기록관 내의 도서관으로 규정하는 입장도 있다(Pedersén, 1986, 20-21; 1998, 3). 이러한 특징 및 차이에 기대어 수메르 도시국가에서 발굴된 점토판 중에는 행정문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점토판 보존소를 기록관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가 하면 문서 외에 신화와 전설, 왕조사, 교역, 서신, 문학, 수학과 천문학, 지도, 농사 등을 기록한 문헌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료를 수장한 가구형태, 배열체계, 보존방식 등을 감안하면 도서관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가령 BC 14-13세기 전성기를 구가한 시리아 우가리트(Ugarit)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의 대다수는 행정문서이므로 기록관으로 간주하는(Pedersén, 1998, 68-80) 반면에 BC 8세기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성소인 시파르(Sippar)의 사마시신전(Šamaš-Temple)에서 발굴된 문헌 텍스트 약 800점은 선반 위에 온전하게 보존된 흔적을 감안하여 초기 신전도서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Porcaro, 2002, 63-70). 신전은 커뮤니티 중심이고 도서관은 신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록물 보존소를 초월하여 신성과 세속에 대한 지혜 및 지식을 습득하는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공문서와 기타 문헌은 동일 공간에 보존하였고 βιβλιοθήκη로 통칭하였다는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점토판 문서의 집적에서 출발하여 문헌 보존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문서와 문헌, 기록관과 도서관이 구분되지 않았다. 기록관 속에 문헌 보존기능이 추가되거나, 반대로 도서관 속에서 문서 보존기능이 중시되는, 소위 '기록관-도서관'(archive-libraries)도 일부 존재하였다. 따라서 고대 점토판 보존소에 현재적 안목을 대입하여 성격과 기능을 재단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시리아학(assyriology)과 파피루스학(papyrology) 관점에서 보면 일각에서 문서 모음(기록관)과 문헌 집성체(도서관)로 나누는 것은 인식론적 분열에 불과할 뿐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Fournet et al., 2018, 192-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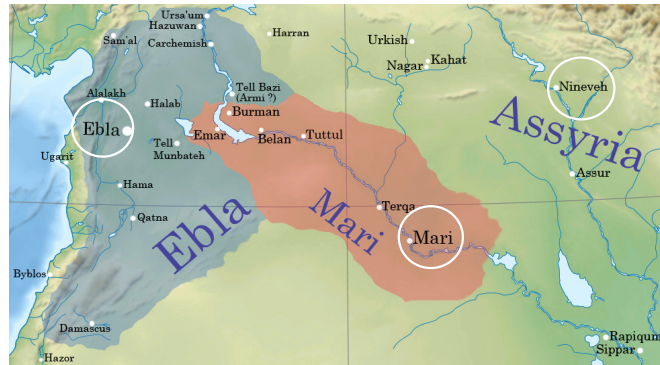
요컨대 도서관의 기원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또는 βιβλιοθήκη)에서 파생된 라틴어 bibliothēkē(또는 bybliotheca)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어 libraria와 librarium에서 유래한 고대 프랑스어 librairie(또는 librairie)를 거쳐 14세기 변용된 영어 library다. 반면에 기록관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어 ἀρχή(arke)에서 파생된 ἀρχεῖον(arkheion)이고, 다시 라틴어 archium(또는 archivum), 프랑스어 archiv를 거쳐 1600년경 영어 archive로 변용되었다. 고대 점토판 보존소의 성격을 두고 기록관으로 또는 도서관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으나 각사된 내용, 배열 및 보존체계의 전모가 규명되지 않는 한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

### III. 고대 근동의 기록관 · 도서관 명칭

#### 1.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점토판 보존소

고대 기록물은 인류가 남긴 대표적인 흔적이자 사료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유적지에서 점토판 등을 대량 발굴하였다. 소급하면 신의 선물인 점토판과 토트(Thoth)의 화신인 파피루스를 비롯한 양피지, 죽간목독, 문서와 종이책 등을 보존한 기록관 또는 도서관에 도달한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매체는 점토판(clay tablet)이다. 시공간적 배후는 BC 3천년을 전후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일명 수메르) 문명을 창출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시리아 에블라(Ebla), 마리(Mari), 우가리트(Ugarit) 등,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Ur), 우루크(Uruk), 니푸르(Nippur), 라가시(Lagash), 키시(Kish), 니네베(Nineveh) 등, 이집트 왕조의 수도 멤피스(Memphis), 룩소르(Luxor), 아마르나(Amarna), 테베(Thebes), 알렉산드리아 등,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Hattuša),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의 필로스(Pylos)



〈그림 2〉 고대 근동 지도(BC 2380)

등에서 많은 점토판이 발굴되었지만, 특히 〈그림 2〉에서 문명의 십자인 에블라(Ebla)와 마리(Mari), 니네베(Nineveh)에서 대량 출토되었다.

첫째, 고대 도시 알레포(Aleppo)에서 남서쪽 55km에 위치한 에블라(현 Tell Mardikh)는 시리아의 경제 중심지였다. BC 2250년경 에블라 왕국이 정치적 · 상업적으로 경쟁하던 마리와 전쟁에서 승리하자 위협을 느낀 아카드 군주 나람신(Naram-Sin)은 에블라 왕궁을 초토화시켰다. 1975년 라 사피엔자(La Sapienza) 대학 마티에(Matthiae) 교수팀이 BC 3천년대 후반 왕실 지하서고(Royal Palace G)에서 나무 선반에 주제별로 보존된 점토판 17,000점 이상(원형 2,500점 이상)을 발굴하였다(Naveh, 1982, 28; Moorey, 1991, 150-152; Dumper & Stanley, 2007, 141). 20세기 고고학계 최대 성과로 간주되는 설형문자 점토판(수메르어 tuppum)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중해 도시의 종교, 정치와 외교, 행정과 법률, 경제와 무역 등에 대한 기록이다. 당시 인구는 26만 명이었고, 신하가 1만 명에 달했으며,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공주를 시집보낼 때 여러 도시를 선물로 주었다. 점토판 중에는 사르곤 대왕이 마리 · 에블라 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 도시국가 라가시의 통치자 구데아(Gudea)가 에블라에서 목재를 수입한 기록, 구약성서 해석과

직결되는 지명과 인물도 등장한다. 그렇다면 에블라 왕궁의 점토판 수장고는 도서관인가, 기록관인가. 많은 논저는 대다수 점토판이 행정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왕실기록관(royal archive)으로 간주하며(Pettinato, 1976, 44-52; Bradscher, 1985, 238-243; 2000, 480), 도서관이라는 시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Wellisch, 1981, 488-500). 그러나 당시 명칭은 미스터리다.

둘째, 시리아 마리(현 Tell Hariri)는 제2왕조 이브룰-일(Iblul-II, BC 2380년)이 통치할 때의 수도로 유프라테스 무역로의 중심이었다. BC 1800년경 아시리아 침공으로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BC 1759년 바빌로니아 군주 함무라비(Hammurabi)에 의해 멸망하였다. 1933-1975년 프랑스 고고학자 파로(Parrot)는 최후 통치자 짐리림(Zimri-Lim, BC 1776-1761년)의 왕실 공문서관(chancery archive)에서 아카드어로 각사된 점토판 25,000점 이상을 발굴하였다. 소위 ‘마리문서’로 회자되는 점토판 중 3천점 이상은 서신이었고, 나머지는 인접한 바빌론·엘람 등과의 외교 및 무역 기록, 왕실 일상, 행정·사법·경제 관련 문서였다. 그렇다면 마리 점토판 수장고는 도서관인가, 기록관인가. 에블라와 마찬가지로 후자에 방점을 두고 점토판 컨테이너(pisâg-dub-ba)에 담아 보존한 ‘왕실기록관’ 또는 ‘tabularium’(house of tablets)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많다(Weitemeyer, 1956, 224; Geller, 201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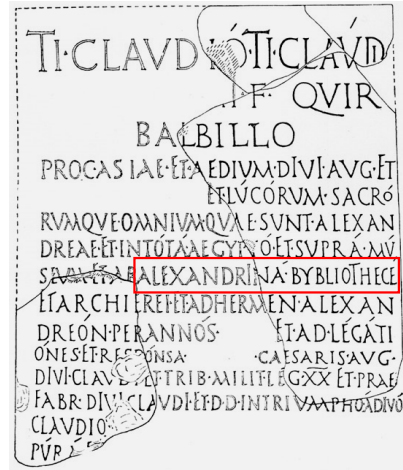
셋째, 티그리스 동쪽 니네베(현 Mosul 교외)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최후 군주 아슈르바니팔 대왕(Ashurbanipal, 재위 685-627년) 때 수도이자 최대 도시다. 대왕은 근동, 지중해 동부,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 일부를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형문자(아카드어, 수메르어)를 해독할 정도로 유식하였고 문예를 장려·후원하였다. 그는 정복지 기록물을 전리품으로 확보하는 한편, 바빌로니아 전역 및 주변 왕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제사장에게는 아시리아 역사를, 점성가에게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의사에게는 의학지식을, 역사가에게는 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목록을 만들어 보존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BC 7세기 왕궁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BC 612년 니네베 전쟁에서 메데스인(Medes)과 바빌로니아인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왕궁을 파괴할 때 사라졌다. 1845-1851년 영국 고고학자 레이어드(Layard)와 1853년 라삼(Rassam) 등이 발굴한 점토판 보존소는 니네베 왕궁의 2개 건물(북쪽과 남서쪽) 2층에 위치하였고, 추정된 규모는 길이 27-30피트(7-8m)와 넓이 20피트(6.1m)이며(Eduscares; Hirst, 2017), 3만점 이상을 보존하였다. 주요 내용은 왕실 기록, 허가서, 연대기, 신화, 종교문서, 계약서, 법령, 행정문서, 서신 등이 많았기 때문에 고고학 및 기록학계는 ‘아시리아 기록관’(Assyrian Archives) 등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전리품 및 수집한 자료로 구성되었고, 하늘(11개 목록)과 땅(14개 목록)으로 대별한 후 다시 10개(문법, 역사, 법률, 자연사, 지리, 수학, 천문학, 주술, 종교, 전설)로 세분하고(Weitemeyer, 1956, 225-232; Maltby, 1978, 110) 각각에 식별 태그를 부여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개방하는 등 현대 도서관 기능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록학계가 금과옥조로 삼는 원질서 존중 및 출처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니네베 점토판 보존소는 왕실기록관이 아니라



79년경 언급한 명칭은 <그림 3>과 같이 'ALEXANDRINA BYBLIOTHECE'였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에서 도서관을 지칭한 보편적 용어는 'βιβλιοθήκη'이다. 순수 기록관과 구분한 여러 종류의 도서관을 '책의 집'(per-medjat), '서물의 집'(per-seshw), '신성한 문자의 집'(per-medw-netjer)으로도 지칭하였다(Cartwright, 2019). 또한 도서관의 위치 및 규모를 기준으로 별칭하기도 했다. 예컨대 세라피움 분관처럼 신전 내의 행정행위와 종교의식을 기록한 개별문서 사본 및 목록을 배치한 소규모 방은 집의 상형문자인 'pr md□t'(house of papyrus rolls)로, 무세이온 분관처럼 신전 밖에 존재한 대형 도서관은 'pr md3t pr '□'(house of papyrus rolls of the great house/palace)로 구분하였다(Haikal, 2008, 44-46).

요컨대 고대 문명에서는 주로 왕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치적, 법률·행정, 군사, 노예, 토지, 경제적 거래·조세 문서 등을 기록한 점토판, 파피루스 등을 수집·보존하였다. 시리아 에블라 및 마리아왕국의 점토판 보존소는 문서 위주의 기록관이었으나 도서관 기능도 내포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관에서 분화된 고대 도서관 사례는 신아시리아 아슈르바니팔도서관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 대표적이다. 모두 문서는 물론 다양한 문헌을 수집·보존하였고, 기록관이 강조하는 원질서 존중, 출처주의, 연대순 분류체계가 아닌 주제 또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범주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 ALEXANDRINA BYBLIOTHECE (79년)

#### IV.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서관 명칭

고대 그리스는 BC 776년 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되었고, 헬레니즘 그리스는 BC 323년 알렉산더대왕이 급사한 후 또는 BC 146년 로마 속주가 되면서 종식되었다.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 정치, 철학과 사상, 교육과 과학, 건축과 예술은 로마 속주 하에서도 지중해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 알파벳 등장은 문자해독 욕구를 일으키고, 교육과 학교 설립을 재촉하였으며 책 소비와 서적상 등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식층의 개인문고 조성은 도서관 태동에 불을 지폈고, BC 330년 스파르타의 전설적 웅변가 리쿠르구스(Lycurgus)가 희귀 필사본 보존소를 지정하도록 명한 칙령은 도서관 설립을 촉발하였다. 이를 계기로 등장한 유형은 왕실·제국도서관, 학당·개인도서관, 공중목욕탕·체육관 부설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 1. 왕실·제국도서관

먼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왕실도서관은 BC 3세기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1세(Attalos I)가 아나톨리아(Anatolia, 현 터키)의 페르가몬 아크로폴리스에 건립하고 에우메네스 2세(Eumenes II)가 확장한 왕립 페르가몬도서관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Athena)<sup>3)</sup>를 위한 신전도서관이자 동방의 지식창고였다. 당시 명칭은 'Βιβλιοθήκη της Περγάμου'이었으며, 방 8개(대형 홀, 연속된 4개, 소형 3개)에 파피루스 두루마리 및 양피지 20만-30만매를 보존하였다.

다음으로 로마 제국의 사례는 132년 황제 하드리아안(Hadrian)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북쪽에 로마 포럼의 건축양식에 따라 건립한 하드리아안도서관(Βιβλιοθήκη του Αδριανού)을 들 수 있다. 당시 아테네 도서관 중 최대 규모(122m×82m)로 파피루스와 문서 등 17,000점 이상을 보존하였고 인접한 홀은 독서실로, 코너는 강의실로 사용되었다. 267년 초기 게르만족인 헤룰리안(Herulian)이 침공하여 파괴하였고, 407-412년 일리리쿰(Illyricum)의 주지사 헤르쿨리우스(Herculius)가 재건하였다.

한편,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우스 2세(Constantius II)는 357년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직사각형 방(약 3.5-8m) 5개로 구성된 제국도서관을 건립하여 그리스·로마의 필사본과 문서 등 10만점 이상을 보존하였다. 당시 도서관 명칭은 'βασιλική βιβλιοθήκη'이었다. 그러나 473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11-12세기 수도를 중심으로 많은 지식층이 생산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1204년 4월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소실되었다(Harris, 1999, 43). 그리고 1222년 황제 존 3세(John III)가 북부 니케아(Nicaea)로 천도하고 궁전 날개에 제국도서관을 재건하였으나 1453년 터키 오스만 제국이 파괴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리스 고전의 대다수는 제국도서관의 유산이다.

## 2. 학당 부설 및 개인도서관

아테네 학당의 도서관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Ἀκαδημία, 라틴어 Academia)와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Λύκειον, 로마어 Lykeion)<sup>4)</sup>에 부설된 도서관이 대표적이다. 아카데미아는 BC 387년 플라톤이 아테네 성벽 밖 올리브 숲 근처에 설립한 학당으로 BC 86년 로마 장군 술라(Sulla)가 아테네를 약탈할 때 파괴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명칭과 공간구조, 장서규모에 대한

3) 아테나는 제우스와 메티스(Metis)의 딸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 전쟁, 직물, 요리, 문명 등의 여신이다. 로마 신화의 미네르바와 동일시된다.

4) 아테네 학당인 리케이온은 리세움(Lyceum)으로도 지칭된다. 고대 그리스어 'Λύκειον'의 로마어 번역이 리케이온, 라틴어 번역이 리세움이다. 리케이온은 아테네 교외의 수호신 아폴론 리케이오스(Apollon Lykeios) 신전 지역으로 채육장도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명을 학당 명칭으로 선택하였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Ἀπόλλων, Apollon, 로마신화에서 라틴어 Apollo)은 제우스(Zeus)와 레토(Leto)의 아들로 광명, 치유, 예언, 예술, 음악, 시를 주관하는 신이다.

기록이나 연구는 거의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리케이온은 BC 335년 아테네 이방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부 교외의 아폴로 니케이오스(Ἀπόλλων Νύκειος) 신전 부근에 설립한 학당으로 529년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I)가 폐쇄하였다. 부설도서관은 열주랑(stoa), 박물관, 정원, 산책로 구성된 학당의 일부였다. 그는 방대한 책(직접 수집한 400권 이상과 다른 학자의 저서나 원고, 제자들이 연구·정리한 책, 구입 또는 수증한 책)과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조직·보존하였다. 그러나 아테네를 떠날 때 제자이자 원장이던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os, BC 371-287년)에게 리케이온 장서를 맡겼고, 제자는 후계자 넬레우스(Neleus)에게 유산으로 남겼으며, 넬레우스는 고향 스킵시스(Skepsis)로 옮겨 보관하다가 상속인에게 넘겼고, BC 1세기경 아테네 도서수집가 아펠리콘(Apellikon)에게 팔았으며, 이집트 프톨레미 2세(Ptolemy II)는 리케이온 장서의 복사본을 구입하여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 편입시켰다(Harris, 1999, 41). 리케이온 부설도서관은 후세가 아리스토텔레스도서관(Aristotelus bibliothekē)으로 명명할 뿐, 당시 명칭은 미스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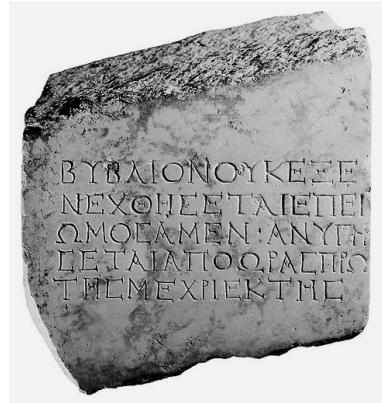
그리스 및 아테네의 군인, 정치가, 부호 등이 설립한 개인도서관은 BC 6세기를 전후로 대중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였다. 최초 인물은 아테네 정치가 겸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 BC 600-527년)인데, 많은 자료를 수집·보존하다가 아테네에 기부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신뢰하기 어렵다. BC 85년에는 아테네를 장악한 술라가 반란 혐의로 추방될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제자 테오프라스토스의 장서 등으로 구성된 아펠리콘도서관(Ἀριστοτέλους βιβλιοθήκη)<sup>5)</sup> 장서를 로마로 옮겨 개인도서관을 열었다(Chisholm, 1911, 161). BC 37년 군인 겸 정치가 폴리오(Pollio)는 로마 7대 언덕의 하나인 아벤티노 언덕(Aventino Hill)의 로마포럼에 인접한 ‘자유신전’(Atrium Libertatis) 내에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이에 대한 건축형태 및 배치구조에 대한 증거는 매우 부족하지만 ‘아트리움’이라는 명칭이 열주랑 양식의 중정을 지칭하므로 내부의 일부가 도서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자료를 분리·보존한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로마의 대다수 공공도서관에 적용되었다. BC 28년경에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Caesar Augustus)가 로마 7대 언덕 중 요체에 해당하는 팔라티노 언덕(Palatino Hill)의 아폴로 신전 내에 두 번째 공공도서관인 ‘Bibliotheca Apollinis Palatini’를 건립하였다. 5개로 구성된 방 중에서 2개에 그리스와 라틴어로 구분한 자료를 보존하였다.

100년경 그리스 철학자 판타이노스(Pantainos)가 아테네 아고라 남동쪽 코너에 설립된 판타이노스도서관(Βιβλιοθήκη του Πανταίνου)은 독서실을 포함한 6개 방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의 유일한 증거인 <그림 4>의 비문에는 도서관 규칙 및 개관시간이 기록되어 있다.<sup>6)</sup> 110년 로마

5) 고대 그리스 도시 테오스(Teos) 출신으로 아테네 시민이 된 부유한 애서가 아펠리콘(Apellikon, BC 100년)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제자 테오프라스토스의 후손으로부터 고가로 구입한 책을 중심으로 만든 도서관이다.

6) 비문 내용 중에는 ‘우리가 선서했으므로 책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은 6시간 개관한다’는 기록이 있다. Figure 45. Rules of the Library of Pantainos: “No book is to be taken out because we have sworn an

집정관 아킬라(Aquila)가 부친이자 소아시아 속주의 총독이던 켈수스(Celsus)를 기념하고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하기 시작하여 135년 완공한 켈수스도서관(Celsus Kütüphanesi)은 에페수스(Ephesus) 소재 상업적 아고라의 미트리다테스 게이트(Mithridates gate) 밖에 위치하였다. 자료공간은 약 182㎡이고 12,000권을 보유하였을 정도로 로마제국 당시 알렉산드리아, 페르가몬에 이어 세 번째로 방대한 규모였다. 세간의 주목을 끄는 여성 동상 4개는 지혜(Σοφία), 미덕(Ἀρετή), 관용(Ἐννοια), 지식(Ἐπιστήμη)을 상징한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화재 또는 262년 고트족 파괴로 2층 외형과 내부 공간의 일부가 남아 있다. 114년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Trajan)는 다키아(Dacia)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기반으로 그리스 아고라(공회장)에 상당하는 트라야누스 포럼(Trajan's Forum)에 율피아도서관(Βιβλιοθήκη Ὑλπια)을 건립하였다.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된 후 서양 세계의 중추 도서관이었고 476년 서로마가 몰락할 때까지 존재한 유일한 도서관이었다. 장서는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서 이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3만점 이상으로 추정되며,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분리·보존하였다. 그 외에 장군, 정치가, 학자, 재력가, 성직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한 개인도서관과 개인문고는 상당히 많았다.



〈그림 4〉 Rules of the Library of Pantainos

### 3. 목욕탕·체육관 부설도서관

고대 그리스·로마의 대다수 체육관(γυμνάσιον, gymnasium)에는 대중도서관이 부설되었다. 그 배경은 그리스에서 체육이 지적 학습만큼 중시되었고, 체력 단련 후 독서활동 및 학습기회를 제공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체육관은 현대 피트니스 클럽 이상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철학·문학·음악 등을 수강·토론하며, 무료 독서활동 및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주로 둘러싼 운동실, 탈의실과 욕실, 강의실과 강당, 도서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흔적은 BC 1세기 터키의 그리스 도시 할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와 남서쪽 밀라사(Mylasa) 및 델포이(Delphi), 프톨레미 2세가 건립·헌납한 올림피아, 아테네 리케이온, 프톨레미 3세와 6세의 아테네, 마케도니아 필립 5세(Philip V)의 라리사(Larisa), 터키의 페르가몬과 호메레이온(Homereion) 등의 체육관에도 남아있다. 더욱 분명한 사례는 BC 2세기 페르가몬 소재 체육관에서 비문 2개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도서관 건립비, 다른 하나에는 도서관 책임자 데메아스

oath. (The library) is to be open from the first hour until the sixth.”  
 <<https://agora.ascsa.net/id/agora/monument/library%20of%20pantainos>>

(Demeas)의 아들을 기리는 내용이다. 또한 그리스의 로도스 아크로폴리스(Acropolis of Rhodes) 체육관 근처에서도 BC 2-1세기 기록된 비문 3개가 발견되었다. 하나에는 'BYBΛIOΘHKAN'이 2번 등장하고, 다른 하나에는 기부자 및 책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Mamoli, 2014, 114; Prag, 2007, 93). 그 외 2세기 디오클레스(Diocles)가 코스(Kos) 섬에 건립한 체육관, 로마제국 시절 시칠리아 섬의 타우로메니온(Tauromenion) 체육관 등에도 도서관이 부설되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소규모 방으로 현대의 도서관 수준이었고, 명칭 또한 독립적으로 부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리스 체육관 문화는 로마시대에 대중육장과 통합되었고 도서관이 부설되었다. 4세기경 1천개에 달한 로마 육장의 전형적 특징은 탈의실, 운동실, 개방형 수영장, 냉탕과 온탕, 사우나실, 마사지실, 미용실, 매점과 식당, 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였다. 그 중 도서관이 부설된 육장은 트라얀(Trajan), 카라칼라(Caracalla), 디오클레티안(Diocletian)이 대표적이다. 트라얀 육장(330×215m)은 104-109년 트라얀 황제가 아폴로도로스(Apollodorus)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오피안 언덕(Oppian Hill) 남쪽에 건립한 육장으로 방 2개에 라틴자료와 그리스자료로 구분한 도서관을 부설하였다. 537년 고트족의 로마 침탈로 파괴되었다. 카라칼라 육장(337m×328m)은 211-217년 황제 세베루스(Severus)와 공동 통치자 카라칼라가 로마 첼리오 언덕(Caelian Hill) 남쪽에 건립한 것으로 동시 수용인원이 1,600명, 육조수가 6,000-8,000개에 달할 정도로 두 번째로 큰 육장이었다. 규모가 트라얀 육장보다 크고 당시 로마 도서관이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구분·보존한 관행을 감안하면 유사한 규모 및 구조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오클레티안 육장은 298-306년 황제 디오클레티누스(Diocletianus)가 비미날 언덕(Viminal Hill)에 건립한 수영장(3,500㎡)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육장이었다. 도서관은 트라얀 포럼 내에 있던 율피아도서관에서 이관한 자료로 구성하였거나 전문 이용자 및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주장(Yegül, 2010, 126)이 있으나 대중용인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요컨대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서관은 왕조가 설립한 왕실(제국)도서관, 신전도서관, 학자·군인·부호 등이 만든 개인도서관, 체육관·목욕탕에 부설된 대중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 도서관은 대개 연속적인 열주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책을 보관하였고 독서, 학습 등 관련 활동은 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반면에 로마 도서관은 복합단지 일부 또는 독립된 건물에 책을 보존하고 관련 활동이 가능한 대규모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그리스·로마시대의 도서관은 지배계층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자유로운 학습 및 독서공간이었고, 후대의 도서관 발전과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추적·논증한 바와 같이 그리스계 이집트 왕조 및 그리스·로마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도서관 명칭은 <표 3>에 집약한 것처럼 서가, 도서관, 또는 북컨테이너를 함축하는 'βιβλιοθήκη'(bibliothēkē)이다. 그것은 남성형 명사 'βιβλίον'(book)과 여성형 명사 'θήκη'(bookcase, storing place)을 조합한 것이며, 라틴어 bibliothēca로 파생되었고 다시 로망스어(프랑스 bibliothèque,

독일 bibliothek, 스페인과 이탈리아 biblioteca, 네덜란드 bibliotheek, 스웨덴 bibliotek 등)로 변용되었다. 그리고 라틴어 libraria(또는 librarium)에서 파생되어 14세기 등장한 또 다른 도서관의 명칭이 영어 library다. 이러한 명칭은 중세 수도원 도서관(cathedral bibliothek)으로 계승되었고, 이슬람제국은 페르시아 21대 군주 호스로 1세(Khusrau I, 재위 531-579년) 때 모스크에 건립된 '지혜의 집'을 아랍어로 직역해 '바이트 알 히크마'(bayt al-hikmah, 지혜의 집)<sup>7)</sup>로 불렀다. 동양 한자권 국가에서는 서고(書庫), 서장(書藏), 장서처(藏書處), 장서실(藏書室), 장서루(藏書樓), 서적관(書籍館), 도서실(圖書室) 등을 거쳐 19세기말 화제한어인 도서관이란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표 3〉 고대 도서관의 명칭 사례

시대	도서관 명칭		위치	메인홀 규모(m) L×W	
	현재	당시			
BC	387	Plato's Academy	Ακαδημία	Athens	15,49×11,34
	335	Library at the Lyceum	βιβλιοθήκην	Athens	
	283-246	Royal Library of Alexandria	βιβλιοθήκαι : Bibliothekai	Alexandria	-
	"	Library in Gymnasium of Ptolemy	βιβλιοθήκην	Athens	-
	246-221	Serapeum(Alexandria)	ταμεία τῶν βιβλίων : Bybliothecae	Alexandria	-
	200-175	Library of Pergamon	βιβλιοθήκη : Bybliotheca	Pergamon	5,95×13,53
	100	Library at the gymnasium of Rhodes	βιβλιοθήκη	Rhodes	11,7×20,5
	37	Library at the Atrium Libertatis	βιβλιοθήκη : Bibliotheca	Rome	
	28	Augustan Palatine Library	βιβλιοθήκη : Bibliotheca	Rome	18×15
	23	Library in the Portico of Octavia	βιβλιοθήκη	"	-
AD	80	Domitian's Palatine library	βιβλιοθήκη	"	19,5×17,5
	109	Library in the Baths of Trajan	Bibliotheca	Rome	28,8×14,4
	110	Pantainos Library	Bibliotheca	Athens	10,75×9,75
	114-128	Ulpian Library	Bibliotheca	Rome	24,0×17,0
	120	Neon Library	βιβλιοθήκη	Sagalassos	9,5×11,8
	125	Library at the Pantheon	βιβλιοθήκη	Rome	
	131	Hadrian's Library	οικίματα (...) βιβλία	Athens	14,05×20,22
	135	Celsus Library	βιβλιοθήκη	Ephesus	10,92×16,72
	2C	Library in the Forum of Philippi	Bybliothecae	Philippi	9,37×13,07
	150-200	Library of Rogatinus	Bybliothecae	Timgad	10,0×15,0
217	Library in the Baths of Caracalla	Bibliotheca	Rome	22,1×38,7	
354	Imperial Library of Constantinople	βιβλιοθήκη	Constantinople	-	

7) 바이트(bayt)는 집(家)이나 관(館) 또는 전당(殿堂), 알(al)은 정관사, 히크마(hikmah)는 이슬람 율법과 철학에서 '지혜'를 의미한다.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가 고대 도서관사를 연구하였다. 그럼에도 고대 문명에서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를 보존한 공간은 기록관인지 도서관인지, 당시 명칭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범용되는 유럽의 bibliotheca와 영미의 library는 어디서 기원하였고 어떤 변용을 거쳤는지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추적한 결과를 요약·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이란 말은 두 갈래에서 기원하였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또는 βιβλιοθήκη)에서 라틴어 bibliothēkē(또는 bybliothea)가 파생되었고, 로마 제국을 거쳐 유럽 제국에서 변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라틴어 libraria(또는 librarium)가 고대 프랑스어 librairie(또는 librairie)로 변용된 후 14세기초 영어 library로 다시 변용되었다. 도서관을 의미하는 βιβλιοθήκη의 최초 흔적은 2세기 후반 폴록스의 『Onomasticon』이고, 도서관을 문헌 텍스트의 집합으로 간주하면 1602년 립시우스의 『De Bibliothecis Syntagma』다. 영어 library의 출현은 524년 보이티우스의 『De Consolatione Philosophiae』이 단초를 제공하였고, 1374년 영국 작가 초서가 조어하였다.

다음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왕조의 역사 및 치적, 법률·행정, 토지·조세, 경제·일상 등을 기록한 점토판, 파피루스 등을 수집·보존하였다. 시리아 에블라 및 마리의 점토판 보존소는 문서가 위주였기 때문에 기록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 기능도 내포하고 있어 확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기록관에서 분화된 신아시리아 니네베의 아슈르바니팔 왕립도서관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 대해서는 고고학 및 기록학계 일각에서 기록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당한 인식이 아니다. 치밀한 수집계획에 따라 문서는 물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문헌을 수집·보존하였고, 기록관이 금과옥조로 삼는 원질서 존중, 출처주의, 연대순 분류체계가 아닌 주제 또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범주화한 사실이 방증한다. 그러나 에블라, 마리, 니네베의 사례는 당시 명칭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에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공식 명칭은 ‘Βιβλιοθήκη της Αλεξάνδρειας’에 이어 ‘ALEXANDRINA BYBLIOTHECE’이었다.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기록관과 도서관이 분리되어 발전하였고, 그 유형은 왕실(제국)도서관, 신전도서관, 학자·부호 등의 개인도서관, 체육관·목욕탕에 부설된 대중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 도서관은 체육관과 연계하되 책의 보존과 독서 및 학습활동이 다른 장소와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대개 소규모 방으로 현대 도서실 수준이었으며, 명칭 또한 독립적으로 부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반면에 로마 도서관은 독립된 건물 또는 체육관·목욕탕 등 복합단지 내에 부설되었고 책의 보존 및 관련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그리스·로마 도서관이 제공한 자유로운 독서 및 학습공간은 후대의 공공도서관 발전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로마에서 도서관 명칭은 βιβλιοθήκη와 bibliotheca가 혼용되었다.

이러한 고대 도서관의 명칭은 중세 수도원 도서관(cathedral bibliothek)으로 계승되었고, 이슬람

제국에서는 'bayt al-hikmah'로 변용되었으며, 동양 한자권에서는 서고, 장서처(실), 장서루, 서적관, 도서실 등을 거쳐 19세기말 도서관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동양 3개국에서 화제한어인 도서관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고, 각국에 서양도서관을 최초로 소개한 인물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수용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게다가 1901년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가 한국에 만든 도서관의 최초 명칭은 독서구락부, 도서구락부, 부산도서실, 홍도문고, 홍도도서관, 홍도도서실 중에서 어느 것인가. 이들을 추적·논증하는 후속연구가 시급하다.

## 참 고 문 헌

- Arksey, L. (1977). The Library of Assurbanipal, king of the world. *Wilson Library Bulletin*, 51, 832-840.
- Bradscher, J. G. (1985). Ebla's royal archives. *Information Development*, 1(4), 238-243.
- Cartwright, M. (2019).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Available:  
<https://www.worldhistory.org/article/1428/libraries-in-the-ancient-world/>
- Castel, C. (2000). Archives and libraries in the ancient near east 1500-300 B.C.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20(3), 480-481.
- Chisholm, H. ed. (1911). Apellicon. In *Encyclopædia Britannica*, 2(11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lhey, M. et al. (2015). Wordlists for libraries and closely related phenomena in different manuscript cultures from Asia, Africa and Europe. *CSMC-Occasional Paper*, 2, 1-27.
- Dumper, M. & Stanley, B. E. (2007). *Cities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 Historical Encyclopedia*. Santa Barbara, Calif.: ABC-CLIO.
- Eduscapes, Ancient Libraries: 600s BCE. Available:  
<http://eduscapes.com/history/ancient/600bce.htm>
- Fournet, J.-L. et al. (2018). Archives and Libraries in Greco-Roman Egypt. *Manuscripts and Archives: Comparative Views on Record-Keeping*. New York: De Gruyter.
- Geller, M. J. (2018). Library or archive in Qumran?: the view from Mesopotamia. *Henoch*, 40(1), 9, 8-13.
- Grünbart, M. (2018). Securing and Preserving Written Documents in Byzantium. In *Manuscripts and Archives: Comparative Views on Record-Keeping*, Alessandro, Bausi-Christian, Brockmann-Michael Friedrich, Sabine Kienitz eds. Berlin: De

Gruyter.

- Haikal, F. M. (2008). Private collections and temple libraries in ancient Egypt. In *What Happened to the Ancient Library of Alexandria?*, Mostafa El-Abbadi, Omnia Fathallah, Ismail Serageldin, eds. Leiden: Brill.
- Harris, M. H. (1999). *History of Libraries of the Western World*, 4th ed. Metuchen, N.J.: Scarecrow Press.
- Hendrickson, T. G. (2013). *Life and Libraries in the Roman World*. Doctoral dissertation, UC Berkeley, United States.
- Hirst, K. K. (2017). *The Library of Ashurbanipal: 2,600 year-old Mesopotamian books*, Available: <https://www.thoughtco.com/library-of-ashurbanipal-171549>
- IFLA (2020). *Library map of the world*. Available: <https://librarymap.ifla.org/map>
- Kupfer, D. C. (2010). Chaucer, books, and the poetic library.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ejournal). Available: <https://digitalcommons.unl.edu/libphilprac/429>
- Liddell, H. G. et al. (1996).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Oxford: Clarendon Press.
- Lutz, C. E. (1978). The oldest library Motto: ψyxhσ latpeion. *Library Quarterly*, 48(1), 36-39.
- Maltby, A. (1978).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5th ed. London: André Deutsch.
- Mamoli, M. (2014). *Towards a Theory of Reconstructing Ancient Libraries*.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nited States.
- Moorey, P. R. S. (1991). *A Century of Biblical Archaeolog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Naveh, J. (1982). *Early History of the Alphabet: An Introduction to West Semitic Epigraphy and Palaeography*. Jerusalem: Magnes Press.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Origin and meaning of library. Available: <https://www.etymonline.com/word/library>
- Pedersén, O. (1986). *Archives and Libraries in the City of Assur. A Survey of the Material from the German Excavations, part I: 1985, part II: 1986*. Uppsala: Uppsala University.
- Pedersén, O. (1998). *Archives and Libraries in the Ancient Near East 1500-300 B.C.*. Bethesda: CDL Press.
- Pettinato, G. (1976). The royal archives of Tell Mardikh-Ebla. *The Biblical Archaeologist*, 39(2), 44-52.
- Pfeifer, W. (1989).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s Deutschen*. Berlin: Akademie-Verlag.

- Platthy, J. (1968). Sources on the Earliest Greek Libraries, with the Testimonia. Amsterdam: Adolf M. Hakkert.
- Porcaro, D. S. (2002). Sacred libraries in the temples of the Near East. *Studia Antiqua*, 2(1), 63-70.
- Prag, J. R. W. (2007). Auxilia and gymnasia: a Sicilian model of Roman imperialism. *Journal of Roman Studies*, 97(1), 68-100.
- Rajesh, N. & Balamurugan, K. (2020). History of library: a panoramic view. *European Journal of Molecular & Clinical Medicine*, 7(8), 5681-5684.
- Walker, T. D. (1991). Justus Lipsius and the historiography of libraries. *Libraries & Culture*, 26(1), 49-65.
- Weitemeyer, M. (1956). Archive and library technique in ancient Mesopotamia. *Libri*, 6(3), 217-238.
- Wellisch, H. H. (1981). Ebla: the world's oldest library. *Journal of Library History*, 16(3), 488-500.
- Yegül, F. K. (2010). *Bathing in the Roma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